

## 주요 내용

1. [대한민국 마약 실태 2 : 마약 중독자 실태]  
마약 중독자 4명 중 1명꼴(24%), 실제 자살 시도!
2. 최근 조사통계 언론보도
  - 1) 지난 10년간 한국 고령자의 의식 변화
  - 2) 한국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변화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마약 중독자 4명 중 1명꼴(24%), 실제 자살 시도!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도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도 높은 퇴치책 마련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마약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시급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현재 한국 사회 마약 중독자는 100만 명 가량,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5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마약청정국의 기준이나 내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이하일 경우로 인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2021) 인구 10만 명당 마약범은 32명꼴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09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약 중독자가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41%’, ‘자살 시도’로 이어진 경우는 4명 중 1명꼴(24%)에 달했다. 이는 정상적인 일반 성인 대비 4~12배 높은 수치로 그 위험 수준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지난 <163호 대한민국 마약 실태1>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마약 중독자의 삶과 실태’를 더 들여다 보고자 한다. 우리 삶에 교묘하고 깊게 침투한 ‘마약’의 씨앗이 더 퍼지기 전에 정부, 전문단체, 교회 등 사회 차원의 네트워크 형성과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이다.

\*출처 : 중앙일보, 장재인 이사장 “마약인구 100만명, 사회적 비용 5조원” 기사 참조, 2022.07.1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6478#home>)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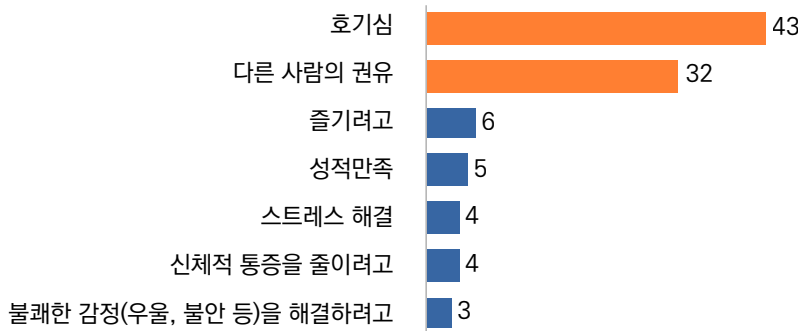
정부 차원에서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정량적인 방법으로 조사한 것은 2009년도의 '마약류중독자 실태 조사'가 처음이었다. 이번에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지난 10월 7일 강선우 국회의원을 통해 일부가 발표되었다.

<넘버즈>에서는 마약중독자 실태 관련 이 두 가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아직까지 2021년 전체 데이터가 발표가 되지 않아 여기서는 부득이하게 주로 2009년 Data를 활용하게 된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 01 '호기심(43%)'과 '다른 사람의 권유(32%)'로 마약은 시작됐다!

- ▶ 마약 중독자들은 처음에 어떻게 마약을 접하게 될까? 최초 마약류를 접하게 된 동기로는 '호기심'이 43%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다른 사람의 권유' 32%, '즐기려고' 6% 등의 순이었다.

[그림] 마약류 처음 접하게 된 동기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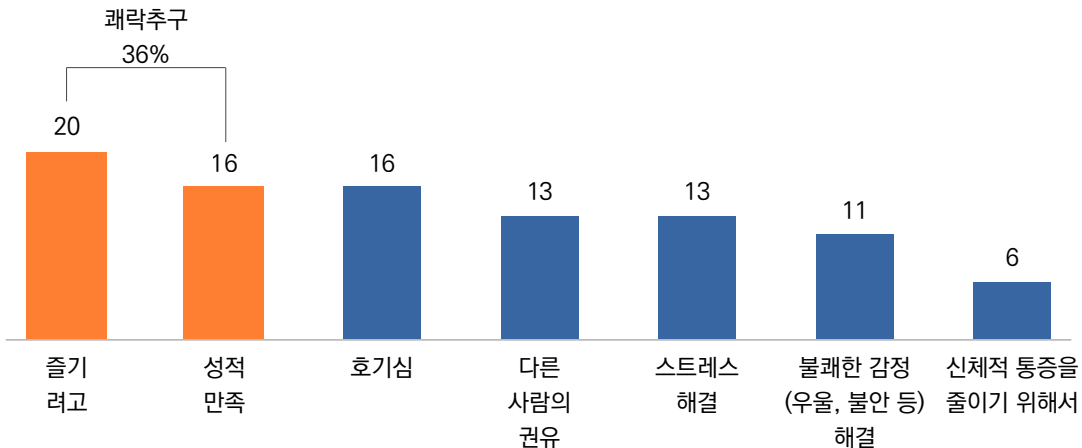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가톨릭대학교, 2009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2010.04.06 (전국의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마약류중독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447명, 면접/자기기입식, 2009.03~2010.02)

## ◎ 마약하는 이유, 3명 중 1명 이상(36%) '쾌락 추구'!

- ▶ 최초 마약류를 접하게 된 동기로는 호기심(43%)이 가장 높았지만, 마약을 하는 주된 이유는 차이를 보였다. '즐기려고' 20%, '성적 만족' 16%, '호기심' 16%, '다른 사람의 권유' 13% 등의 순으로, '쾌락 추구 목적'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마약류 사용의 주된 이유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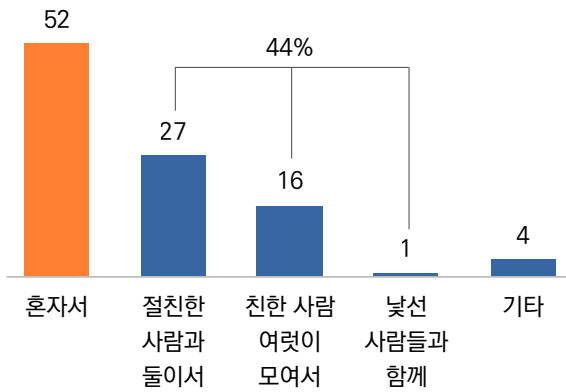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가톨릭대학교, 2009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2010.04.06 (전국의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마약류중독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447명, 면접/자기기입식, 2009.03~201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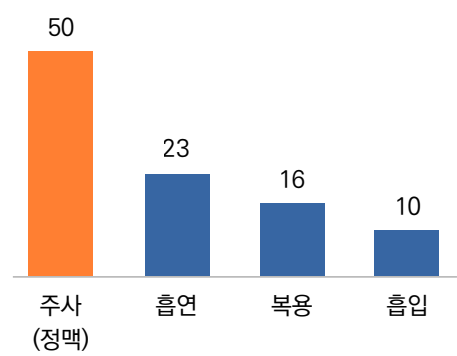
## ◎ 두 사람 이상 함께 마약한다 44%!

- ▶ 주로 누구와 마약을 하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절반 이상(52%)이 '혼자서'라고 응답했고, 그 밖에 '절친한 사람과 둘이서' 27%, '친한 사람 여럿이 모여서' 16%, '낯선 사람과 함께' 1% 등으로, 두 사람 이상 함께 모여 마약하는 경우도 44%나 되었다.
- ▶ 마약류 사용 방법으로는 '정맥주사'(50%)를 사용하여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밖에 '흡연' 23%, '복용' 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그림] 함께 마약하는 대상 (%)



[그림] 마약류 사용 방법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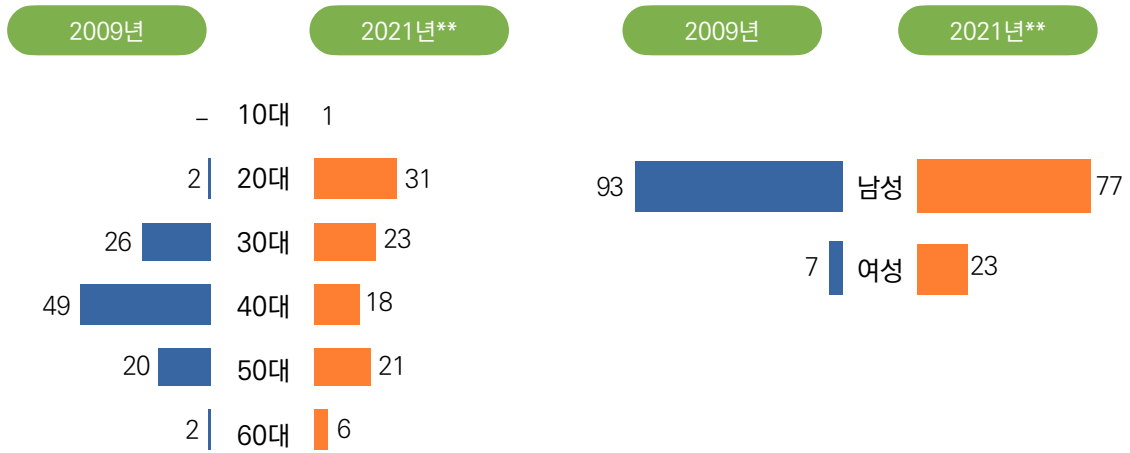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가톨릭대학교, 2009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2010.04.06 (전국의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등에 수형되어 있는 마약류중독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447명, 면접/자기기입식, 2009.03~2010.02)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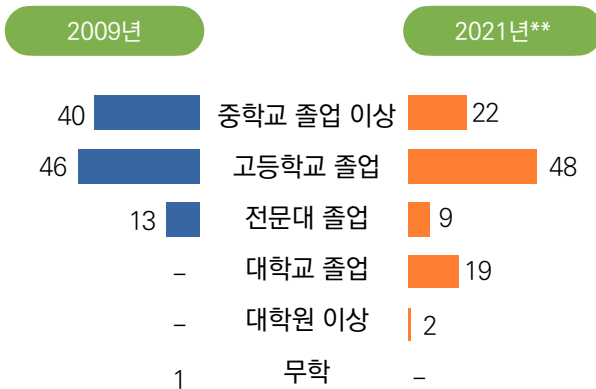
## 마약 사용자, 나이 어려워지고, 학력은 높아졌다!

- ▶ 2009년과 2021년 사이 마약 사용자의 연령별 변화를 살펴보면, 20대 마약 사용자가 2009년에는 2%였는데 2021년에는 무려 31%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중에서 20대 마약 사용자가 가장 많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 ▶ 또한 성별 변화를 보면, 2009년도는 남성 93%, 여성 7%로 남성이 압도적이었으나, 2021년도에는 여성이 무려 23%로 증가해, 전체 마약 사용자 4명 중 1명까지 차지하고 있다.
- ▶ 2009년도 마약류 사용자의 경우 '전문대 졸업 이하'가 대다수(99%)였는데, 2021년도 조사에서는 '대학교 졸업자 이상'이 5명 중 1명(21%)으로 학력도 높아지고 있었다.

[그림] 마약 중독자 연령 및 성별 분포 (2009 vs 2021, %)



[그림] 마약 중독자 학력별 분포 (2009 vs 2021,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가톨릭대학교, 2009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2010.04.06 (전국의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등에 수형되어 있는 마약류중독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447명, 면접/자기기입식, 2009.03~201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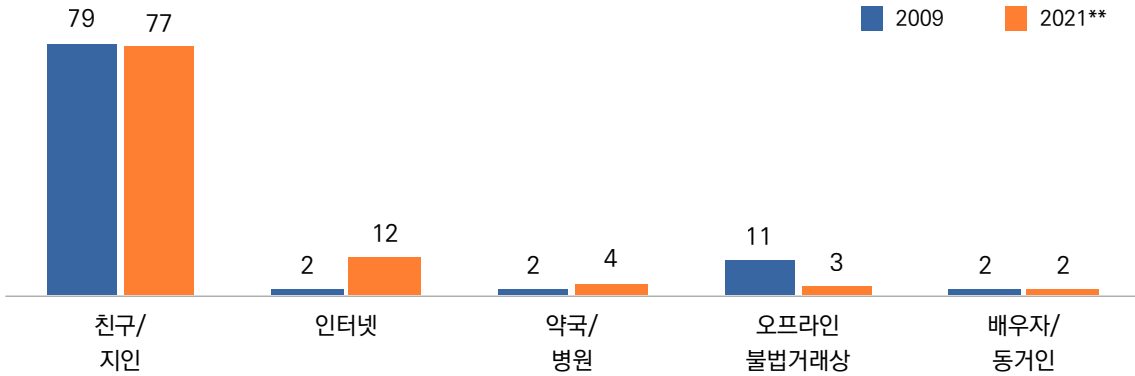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국회의원 강선우 의원실, '학력은 높아지고, 나이는 어려워지는 대한민국 마약 중독자' 보도자료, 2022.10.07. (2021년 보건복지부 '마약류 사용자 실태 조사 결과')

# 03

## 지난 10년 사이 인터넷 통한 마약 구입, 빠르게 증가

- ▶ 마약류를 최초로 구입하게 된 경로로는 2009년과 2021년 조사 모두 '친구/지인'(2009년 : 79%, 2021년 : 77%)이 가장 높았다. 눈에 띄는 변화로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부쩍 활성화(2009년 : 2%→ 2021년 : 12%)된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마약류 최초 구입경로 (2009 vs 2021, 중복응답,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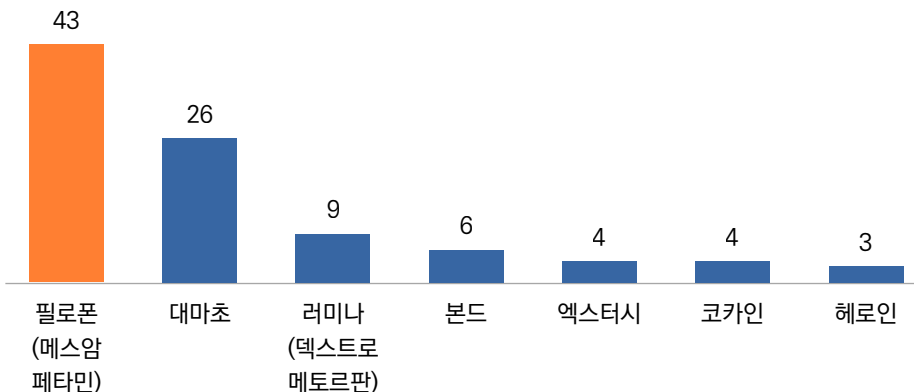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가톨릭대학교, 2009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2010.04.06 (전국의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등에 수형되어 있는 마약류중독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447명, 면접/자기기입식, 2009.03-2010.02)

\*\*자료 출처 : 국회의원 강선우 의원실, '학력은 높아지고, 나이는 어려워지는 대한민국 마약 중독자' 보도자료, 2022.10.07. (2021년 보건복지부 '마약류 사용자 실태 조사' 결과)

### ◎ 마약 사용, 1위 필로폰(43%), 2위 대마초(26%) 순

- ▶ 마약류 사용 경험(1회 이상)을 물은 결과,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이 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마초, 러미나, 본드 등의 순이었다.
- ▶ 필로폰의 경우 코카인, 헤로인 등과 함께 '중독성이 비교적 강한 마약류'(hard drug)인데 타 하드 드럭(hard drug)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해 많이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필로폰 1g 60만원, 통상 1회 투약량 0.03g으로 18,000원꼴)\*\* 강한 중독성과 저렴하고 쉬운 구매 접근성으로 '필로폰'이 주된 마약으로 한국사회에 퍼져 있었다.

[그림] 마약류 사용 경험 (상위 7위, 중복응답,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가톨릭대학교, 2009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2010.04.06 (전국의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등에 수형되어 있는 마약류중독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447명, 면접/자기기입식, 2009.03-201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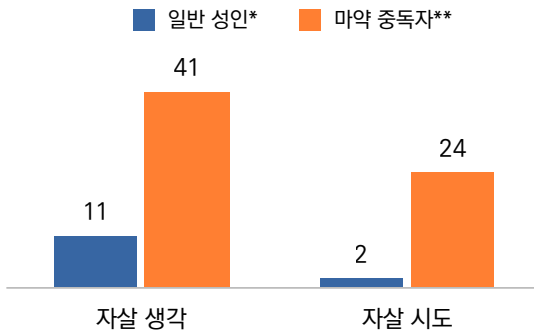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시사저널, 마약왕 옥중 인터뷰 "밀반입되는 마약 중 5%만 적발"(1720호) 기사 참조, 2022.10.11

# 04

## 마약 중독자 4명 중 1명꼴(24%), 실제 자살 시도!

- ▶ 마약 중독자('평생동안' 기준)의 41%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고, '실제 자살시도'로 이어진 경우도 4명 중 1명(24%)꼴이었다.
- ▶ 이는 일반성인('평생동안' 기준)과 비교할 때 '자살생각'은 4배, '자살시도'는 무려 12배나 높은 수치다.

[그림] 정신의학적 상태 (평생기준, '있음/경험함' 비율, 2점 척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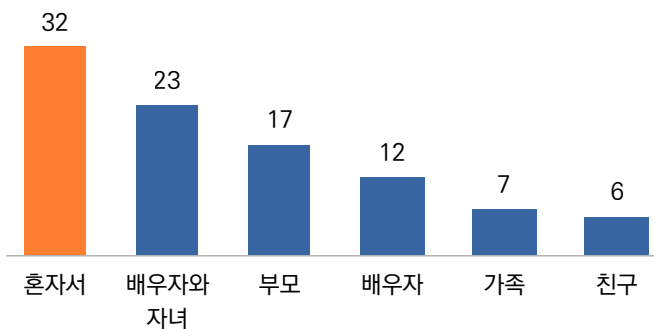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12.24 (만 18세 이상 만 79세 이하 성인 5,511명, 면접조사, 2021.06~2021.08)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가톨릭대학교, 2009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2010.04.06 (전국의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마약류중독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447명, 면접/자기기입식, 2009.03~201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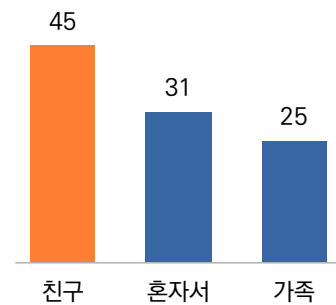
### ◎ 마약 중독자 3명 중 1명, 혼자 '고립된' 생활!

- ▶ 마약중독자의 사회적 관계는 어떠할까? 지난 3년간 함께 생활한 사람에 대해 묻은 결과 전체 응답자 3명 중 1명(32%)이 '혼자서' 생활한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배우자와 자녀' 23%, '부모' 17% 순이었다.
- ▶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질문에서도 '혼자서' 보낸다는 응답이 '친구' 45%에 이어 2위(31%)로 조사돼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지난 3년간 함께 생활한 사람 (상위 6위, %)



[그림] 여가시간 함께 한 사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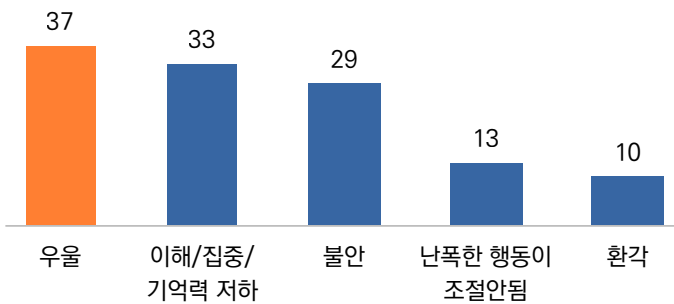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가톨릭대학교, 2009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2010.04.06 (전국의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마약류중독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447명, 면접/자기기입식, 2009.03~201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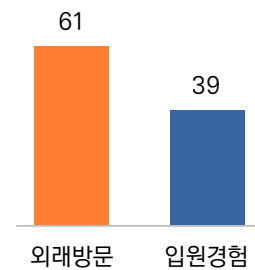
## ◎ 마약 중독자 30% 안팎, '우울', '불안', '기억력 저하' 등 정신과적 문제 겪어

- ▶ 앞서 다룬 마약 중독자들의 정신의학적 상태를 살펴보면 '우울', '이해/집중/기억력 저하', '불안'의 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30% 안팎이었고, '난폭한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었던' 경험 13%, '환각' 증세를 보인 비율도 10%로 조사됐다.
- ▶ 마약류 사용문제로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은 각각 '외래 방문' 61%, '입원 경험' 39%로 나타났다. 마약 사용자 10명 중 6명은 정신의료기관을 찾아갈 만큼의 '정신과적 문제'를 겪고 있음 보여준다. 이는 마약사용 및 중독이 개인의 마음과 삶을 얼마나 피해를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다.

[그림] 마약 중독자의 정신의학적 상태 (2009년, 평생기준, '경험함' 비율, %)\*\*



[그림] 정신의료기관 이용 경험 (2021년, 평생기준,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가톨릭대학교, 2009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2010.04.06 (전국의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등에 수형되어 있는 마약류중독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447명, 면접/자기기입식, 2009.03-2010.02)

\*\*각 항목별 2점 척도 질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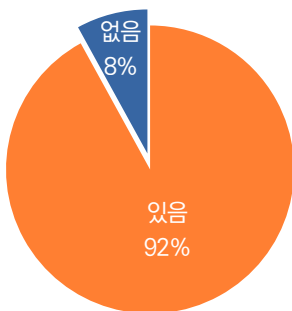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통계시각화 자료 (만 18세 이상 마약류 사용자 540명, 면접조사 및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2021.09-2022.05) (<https://mhs.ncmh.go.kr/front/userVisual/userVisualList.do>)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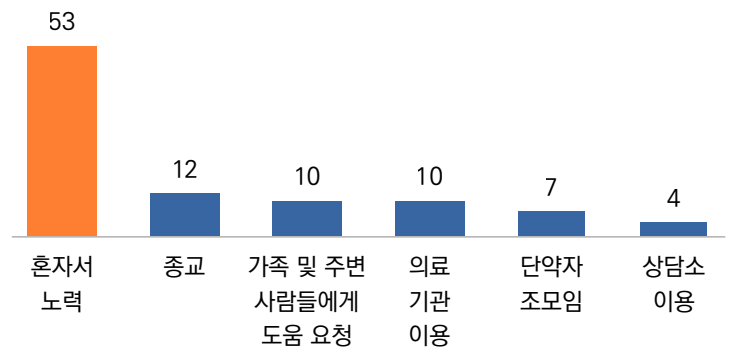
## 마약 중독자 대부분(92%), 마약 끊기 시도!, 단약 위해 '종교'(2위, 12%) 찾기도!

- ▶ 마약 중독자 대다수인 92%가 마약 끊기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단약(마약 등 약물 끊기)을 위한 노력으로는 '혼자서 노력'(1위, 53%)이 가장 높았고, '종교'를 의지하는 경우는 12%(2위)로 응답됐다. 다음으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 10%, '의료기관 이용' 10%, '단약자조모임' 7% 순이었다.

[그림] 단약 노력 경험 여부 (2021)\*



[그림] 단약을 위한 노력 방법 (2009,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통계시각화 자료 (만 18세 이상 마약류 사용자 540명, 면접조사 및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2021.09-2022.05) (<https://mhs.ncmh.go.kr/front/userVisual/userVisualList.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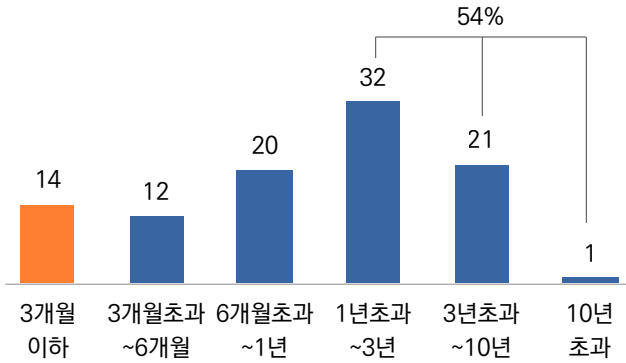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가톨릭대학교, 2009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2010.04.06 (전국의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등에 수형되어 있는 마약류중독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447명, 면접/자기기입식, 2009.03-201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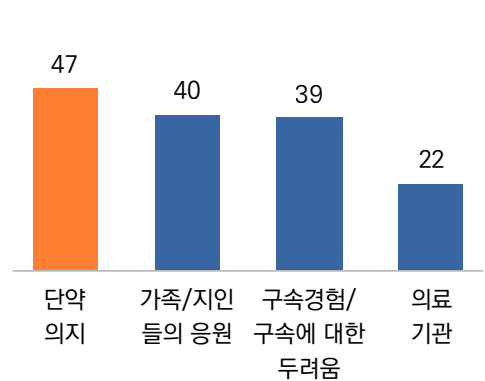
## ◎ 1년 이상 '마약 끊기', 절반 정도(54%)에 그쳐!

- ▶ 앞에서 나타난대로 마약중독자 대부분(92%)이 단약을 위한 노력을 하나, 자발적인 최장 단약 기간(평생 기준)을 보면 절반 정도만(54%) 1년 이상 단약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그렇다면 단약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기여요인은 무엇일까? '본인의 단약의지'(47%)와 '가족/지인들의 응원'이 40%로 가장 높게 응답돼 '개인의 의지', '관계/공동체적 요인'이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자발적인 최장 단약 기간  
(2021년, 평생기준, 단약 경험자, %)



[그림] 단약 유지의 가장 큰 기여 요인  
(2021년, 중복응답,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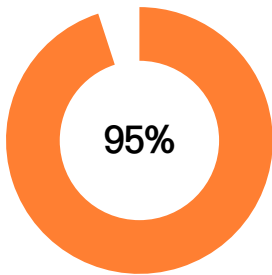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통계시각화 자료 (만 18세 이상 마약류 사용자 540명, 면접조사 및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2021.09-2022.05) (<https://mhs.ncmh.go.kr/front/userVisual/userVisualList.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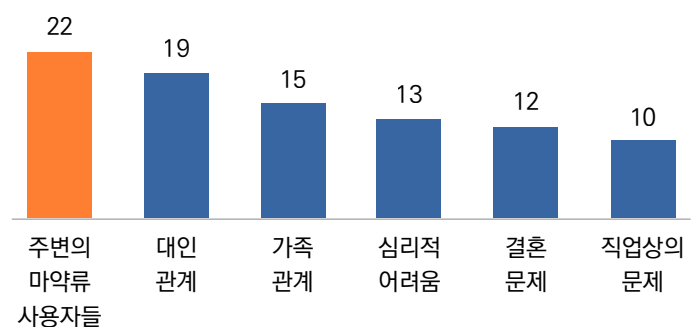
## ◎ 약물 없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 '주변의 약물 중독자들' 22%!

- ▶ 마약 중독자 주위에는 대부분(95%) '마약 사용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약류 없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가장 많이 꼽힌 '주변의 마약류 사용자들'(22%)과도 맥을 같이 하는 점이다.
- ▶ 그 외에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대인관계', '가족관계', '심리적 어려움' 등을 꼽아 상담 및 치료적 접근도 필요해 보인다.

[그림] 주위에 마약 사용하는 사람 '있다'



[그림] 마약류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  
(상위 6위,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가톨릭대학교, 2009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2010.04.06 (전국의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마약류중독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447명, 면접/자기기입식, 2009.03~2010.02)

“약물에 의한 쾌락은 허상이며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에게 절망하고 비판하고 좌절하고 결국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게 된다”<sup>1)</sup> 어느 마약 중독자의 고백이다. 마약을 일컬어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고 부르는데 마약이 주는 무서움을 절묘하게 비유한 표현이다. 마약을 할 때는 황홀하고 쾌감이 크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 삶이 피폐해지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비참한 현실을 ‘지옥’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고, 한번 가면 돌아 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이듯이 마약을 하는 사람도 마약을 끊으려고 노력하지만 끊지 못하고 다시 마약을 하게 된다는 것을 ‘지옥’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

마약 중독자 생활에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 마약 중독자는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7쪽)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우선은 혼자 사는 사람이 마약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들의 시선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경우 마약에 대한 유혹을 받기 더 쉽고 그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마약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외면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가족과 함께 해야 마약의 유혹을 상대적으로 덜 받거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약 중독자는 우울, 불안, 기억력 저하 등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경험을 많이 겪는다. 심지어 난폭한 행동이 조절 안되거나 환각 증세를 겪는다는 비율도 각각 10% 정도였다.(8쪽) 경찰청이 올 10월 17일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 투약 후 벌인 살인·강간 등 2차 범죄가 연평균 217건이었다.<sup>2)</sup> 마약 환각 상태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은 돌발적이라 피해자가 대비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가까운 가족을 상대로 일어난다는 공통점이 있다.<sup>3)</sup> 마약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지고 망상에 사로잡히거나 자기 절제가 안되므로 폭력적 성향도 제어가 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필로폰은 심박수가 증가하고 완력이 3, 4배 증가한다고 한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의 범죄는 강력범죄가 되는 것이다.

마약 중독자들 가운데 41%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했고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한 경우는 24%였다. 일반 성인이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이 11%, 자살 시도 비율이 2%인 것과 비교하면 마약 중독자는 이보다 자살 생각은 약 4배, 자살 시도는 약 12배 더 높았다.(7쪽) 중학교 때 본드를 시작으로 대마초에 필로폰까지 마약에 중독돼 10대와 20대 시절을 보낸 40살 김 모 씨는 마약이 주는 기쁨은 잠시이고 약 기운이 떨어질 때면 찾아오는 절망감으로 우울 증도 겪었다고 고백했다. 그 결과 그가 선택한 것이 자살 시도이다. “친구 관계도 없고 고립되고, 죽자 이렇게 살아 뭐하냐...손목도 그어보고, 넥타이도 메보고...”<sup>4)</sup> 그만큼 마약 중독자의 말로가 비극적인 것이다.

이미 마약에 중독된 이들을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마약을 끊을 시도를 했다.(8쪽) 이들 가운데 절반 정도인 53%는 ‘스스로’ 끊으려고 했다고 한다. 중독성이 아주 강한 마약을 혼자서 끊으려고 했다는 것은 실패를 예고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른 중독도 그렇지만 마약 중독은 더욱 더 전문적 돌봄이 필요하다. 거기에 더하여 가족과 사회가 외면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마약 중독자를 위한 기독교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거나 교계에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여 전문성과 사랑을 가지고 이들이 마약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조선일보, ‘한국형 절망사 보고서2:우울증 및기 위해 무심코 빠진 유혹’, 2022. 06. 17.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6/17/OWZAYO355ZHNDW6BCNRRSKJHE/](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6/17/OWZAYO355ZHNDW6BCNRRSKJHE/))

2) 매일경제, ‘마약투약 후 살인·강간 등 2차 범죄 연평균 217건’, 2022. 10. 1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10/915487/>)

3) 한국일보, ‘10년 전에도 ‘구로구 사건’ 판박이... 마약 살인 공통점은 ‘잔혹·예측 불가’’, 2022.05.13.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215410000896>)

4) YTN, ‘마약 중독자 4명 중 1명은 자살 시도’...복합치료 필요’, 2010. 04. 05. ([https://www.ytn.co.kr/\\_ln/0103\\_201004051735455561](https://www.ytn.co.kr/_ln/0103_201004051735455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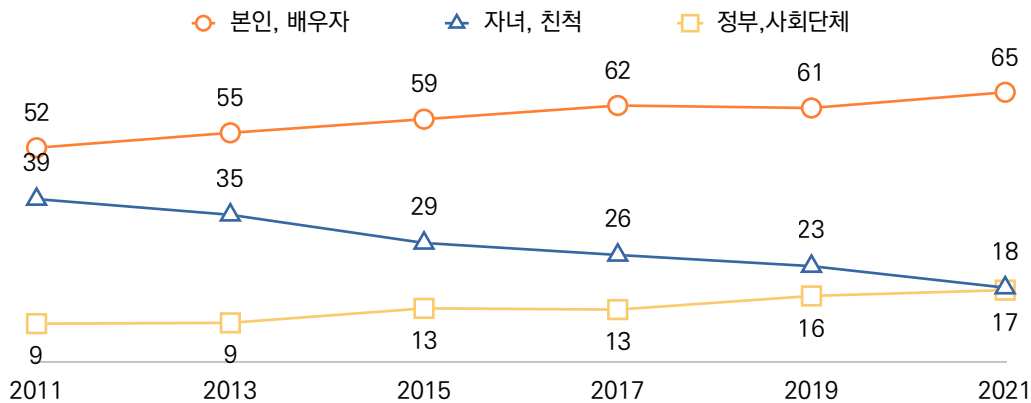
- 1.[지난 10년간 한국 고령자의 의식 변화]
- 2.[한국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변화]



## 한국 65세 이상 고령층, 65%는 생활비 직접(본인·배우자) 마련한다!

- ▶ 최근 통계청의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65세 이상) 비율은 65%로 10년 전(52%) 대비 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 ▶ 반면 '자녀·친척지원'은 2011년 39%에서 2021년 18%로 절반이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 '정부·사회단체 지원'은 지난 10년간 2배가량(2011년 9%→ 2021년 17%)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그림] 고령층(65세 이상)의 생활비 마련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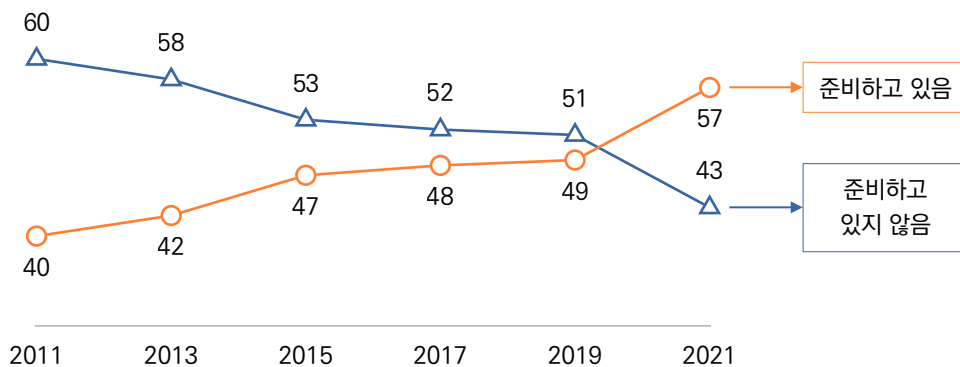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2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2022.09.29

## ◎ 한국 노인 노후준비율, 2021년 들어 처음으로 50% 넘어서!

- ▶ 현재 노후 준비 여부를 묻은 결과, '준비하고 있음' 57%, '준비하고 있지 않음' 43%로 고령자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 ▶ 그러나 아직까지 43%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절반 가까이(48%)가 '국민연금'을 꼽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금적금' 17%, '직역연금' 11% 등의 순이었다.

[그림] 노후 준비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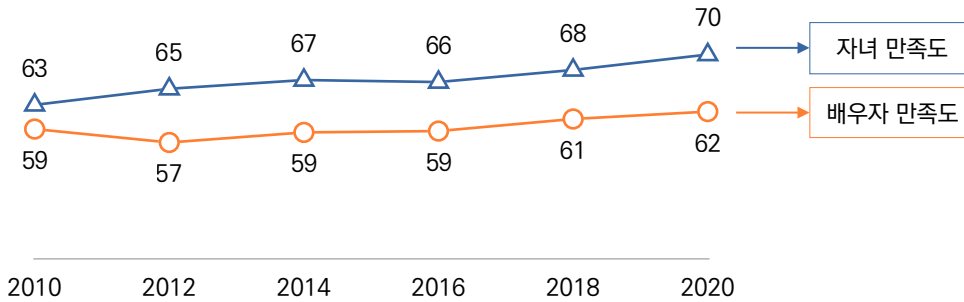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2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2022.09.29.

## ◎ 코로나19 이후 고령층의 '배우자 및 자녀관계' 만족도 높아졌다!

- ▶ 가족관계 중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노인은 62%,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70%로 나타나 10년 새 각각 3%p, 7%p 증가했다.
- ▶ 전체적으로 배우자보다는 자녀 만족도가 높다.

[그림] 고령층의 배우자/자녀 관계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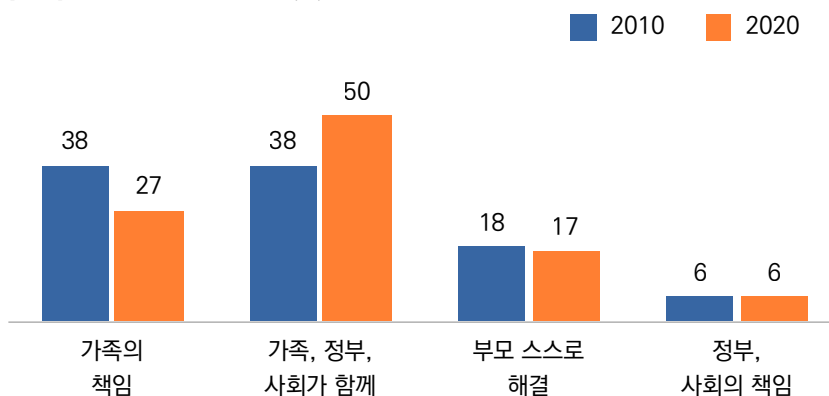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2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2022.09.29  
 \*\*5점 척도 질문임

## ◎ 고령층의 부모 부양 견해, '가족 책임' 비율 줄고,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 높아져!

- ▶ 부모 부양이 '가족의 책임'이라 생각하는 고령자는 2020년 기준 27%로 응답돼 2010년 38%보다 대비 11%p 감소했다.
- ▶ 반면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는 50%로 10년 새 12%p 상승하며 '사회 공동체의 책임'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림]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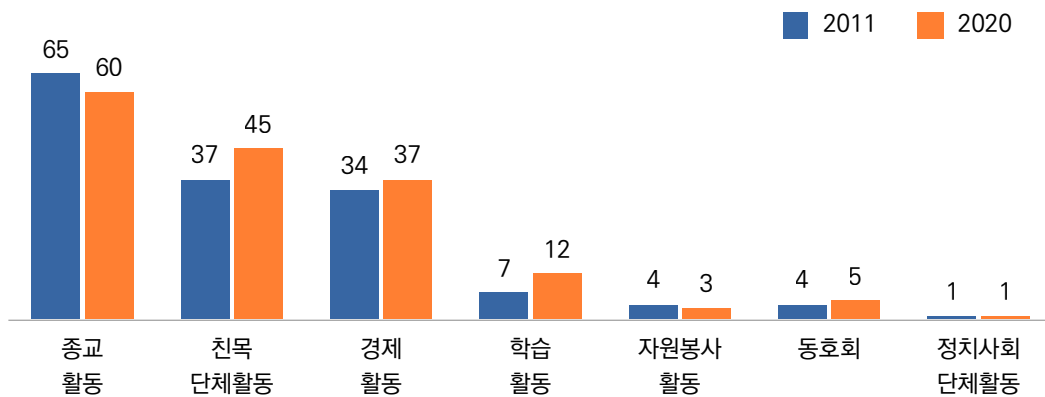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2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2022.09.29



## 우리나라 노인, 사회참여율 1위 '종교활동'(60%)!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및 활동의 변화' 보고서를 통해 한국 노인의 사회참여율과 향후 사회참여 희망률을 살펴보았다.
- ▶ 한국 노인의 사회참여율은 2020년 기준 '종교활동'(60%)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목단체활동' 45%, '경제활동' 37% 순이었다. 9년 전(2011년) 대비 '종교활동'(5%p ↓)과 '자원봉사활동'(1%p ↓) 참여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노인의 사회참여율 (2011 vs 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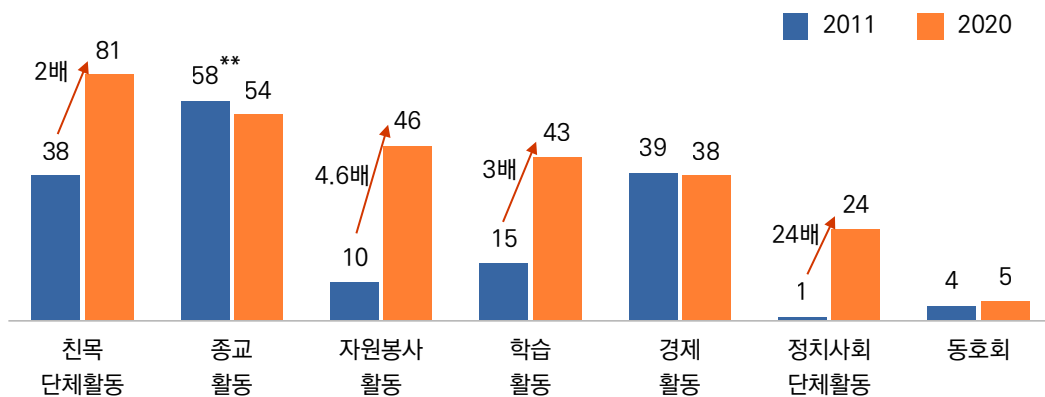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및 활동의 변화' 보고서(보건복지포럼/김세진·이선희), 2022.09.

## ◎ 우리나라 노인, 과거 대비 사회활동 참여 욕구 매우 높아져

- ▶ 향후 노인들의 사회 참여 희망률은 '친목단체활동'(81%)에서 가장 높아 '여가 중심 사회참여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종교활동' 54%, '자원봉사활동' 46%, '학습활동' 43% 순으로 나타났다.
- ▶ 2011년 이후 지난 10년간 친목단체활동, 자원봉사활동, 정치사회단체활동 등에서 2배 이상의 높은 참여의향률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과거 대비 고령층의 높은 사회활동 욕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노인의 향후 참여 희망률 (2011 vs 2020, %)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및 활동의 변화' 보고서(보건복지포럼/김세진·이선희), 2022.09.

\*\*'종교활동'은 향후 참여 희망률 조사가 2014년부터 진행되어 2014년 자료를 활용함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15호\(2022년 10월 2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여성가족부 폐지안,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성 등

◎ 사회 일반

[빈곤이 낳은 '외로운 죽음'...취약계층에 왜 늘어갈까](#)

노컷뉴스\_2022.10.17.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3년...직장인 73%는 여전히 "참는다"](#)

연합뉴스\_2022.10.10.

[개인택시 월 수익 170만 원... "용달차 기사의 2분의 1"](#)

동아일보\_2022.10.11.

['훈밥'보다는...모여서 식사하면 나타나는 놀라운 효과](#)

동아일보\_2022.10.11.

[코로나 경각심 떨어졌다...손씻기 실천율 1년 전보다 9%p 하락](#)

연합뉴스\_2022.10.12.

[코로나 1000일... 6차례 대유행에 전 국민 49% 확진, 누적 사망자 2만8800](#)

조선일보\_2022.10.16.

["요양원으로 바꾸는게 낫다"...어린이집 원장님 '눈물의 전업'](#)

중앙일보\_2022.10.12.

[다가온 엔데믹 시대, 관광 경쟁력 시험대 올랐다](#)

중앙일보\_2022.10.14.

[한국 제비는 100분의 1...세계 야생동물 50년간 69% 감소](#)

중앙일보\_2022.10.14.

◎ 트렌드

[연봉 비밀유지?...美선 공개하는 영상까지 유행](#)

조선일보\_2022.10.11.

[명품은 안사도 여긴 돈 쓴다, 내 집 아닌 내가 '사는' 집](#)

중앙일보\_2022.10.12.

◎ 경제

[사업자 상위 10%가 사업소득 58% 차지](#)

연합뉴스\_2022.10.12.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건강**

[하루 만보 걸으면 치매 위험 절반으로 떨어진다](#)

동아일보\_2022.10.12.

[우울증에 매년 1400조원 사라진다... ‘제2의 팬데믹’ 번지는 정신건강](#)

조선일보\_2022.10.13.

[1주일에 3~4시간 자전거 타는 당뇨 환자, 사망률 32% 낮아](#)

조선일보\_2022.10.12.

[수면시간, 코로나 후 17분 늘었지만 여전히 하위권](#)

조선일보\_2022.10.12.

◎ **국제**

[〈일본〉새벽 재택근무 후 출근, 오후 3시 퇴근... 출산율 기적 일어났다](#)

조선일보\_2022.10.14.

[IMF “생계비 위기” 내년 물가 세계 6.5% 한국 3.8% 전망](#)

중앙일보\_2022.10.12.

[美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 “1년 내 경제침체 온다”](#)

조선비즈\_2022.10.06.

◎ **기독교 / 종교**

[美 목회자 52% “경제가 교회에 부정적 영향”](#)

크리스천투데이\_2022.10.13.

[목회에서 가장 어려운 점 ‘새신자 유입 감소’ 꼽아](#)

더미션(국민일보)\_2022.10.18.



###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중앙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메가리서치, (주)삼신테크,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 후원 개인 |

가우진,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권순홍,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식,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형, 김지한,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홍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운, 박세웅, 박영철, 박영호,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오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영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윤림, 전치영, 정기목, 정부할,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도환, 지연희,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 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 만든 이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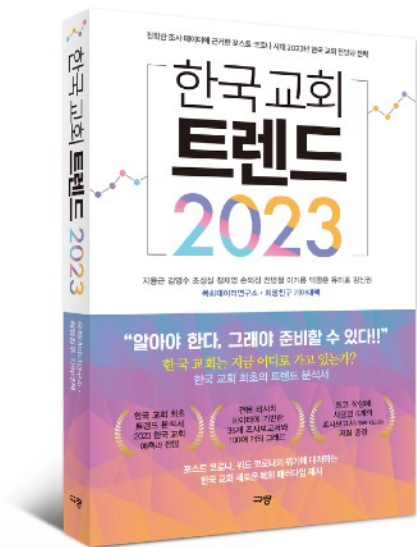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mailto: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mailto:marpro@mhdata.or.kr)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김찬솔

##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해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 | 연구소 소식 .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출간 |

-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하여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진단하고 예측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책을 6개월 간의 긴 작업을 거쳐 국내 최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록으로 원고 작성을 위한 6개 조사보고서를 드립니다.)

보도 자료

책 구입 안내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